

여야, 코로나 관련 법안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한다

정기회 개최식 코로나 여파...애국가 1절만, 방청석 폐쇄
“법률이 정한 국가 회의 ‘50인 제한’ 관계없단 유권해석”
박병석 의장 “의료인 즉각 복귀하라...여야도 뜻 같이해”

여야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김태년 원내대표 제안으로 코로나 관련 법안은 그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며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관련 법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의장께서는 9월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최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축소 진행된다.
한 공보수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고 했고, 4층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 직원들 방청은 국회방송으로 대체하고, 기자단도 풀단을 운영해 출입인원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데 대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은 예년처럼 참석하는데,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실내 50인’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이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최절정기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의료인들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으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즉각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 공보수석은 전했다.
그는 “의료진 집단행동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는 ‘의장의 현장 복귀 촉구 발언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당이 뜻을 같이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 공보수석은 이밖에 “코로나 대응팀은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윤리특위 구성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의장.

했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진행되고 있는 4개 특위도 최대한 빨리 구성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역대급 미니멀’ 興 전당대회...“3단계 되면 현장인원 더 축소”

‘자가격리’ 이낙연 당선시
수락연설도 녹화본으로



향후 2년간 당을 이끌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역대 최소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온라인 방식의 전당대회를 치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집합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된 만큼 전당대회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당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현장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행 지도부 7명, 안구백 전준위원장,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차기 지도부 후보자 등 2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전당대회 실무를 지원할 스태프와 취재 기자 인력도 최소한으로 운영해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는 총 47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시에는 현장 인원이 더 줄어줄 전망이다. 진 의원은 “3단계 격상 시 실내 집합 제한 인원이 10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주민, 이낙연, 김부겸. (사진=KBS 영상 캡처)

명이기 때문에 참석 인원을 더 줄이고자 한다”며 “9명만 현장에 있고, 무대에 출연해야 할 지도부 등 인사들은 별도 회의실에 대기하다가 해당 순서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출연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녹화 동영상 축사가 상영된다. 이후 후보자들의 정경 발표가 진행되고 오후 3시 투표가 종료된다. 3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되고 1시간 동안 개표 및 검수가 이뤄져 오후 5시께 당선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어 당 대표 당선자의 수락 연설이 진행된다. 코로나19 밀집 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3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낙연 후보의 경우 동영상으로 수락 연설을 대체한다. 현장에 참석하는 김부겸·박주민 후보는 현장 연설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이 후보 당선 시 수락 연설은 미리 녹화된 동영상을 상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전남도당 개편...수석부위원장 김한중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26일 도당 수석부위원장에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기획조정실장에 송형근 전도의원, 대변인에는 홍지영 현 대변인을 임명(유임)하는 등 당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한중 수석부위원장은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의장과 제7대, 9대, 11대 3선 도의원으로 현재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송형근 기획조정실장은 박상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10대 도의회 의원(운영위



원장)을, 홍지영 대변인은 광남일보 정치부장·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을 역임했다.
양기호 총무국장과 박경민 당원관리국장은 유임됐다.
전남도당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송형근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신규 당직자 인사 검증을 통과하는대로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섬진강 수해 책임 환경부 수공 감사 촉구”

소병철 의원 “이재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쟁점화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역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부 감사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기록적으로 내린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는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와 방류조절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며 “홍수 관리를 엉터리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통합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를 모두 감사원이 감사해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천시 황전면이 이번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황전면을 찾아 복



구작업을 도우며 주민들의 고통을 정취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내문자보다 물이 더 빨리 넘쳤다’ 등 댐 방류 당시 수공의 녹장통보도 피해가 확대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가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홍수피해를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환경부 역시 홍수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수해 책임의 당사자”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